

처벌 수위 높이고 내부 통제 강화해야

진화하는 금융권 횡령사고

<하> 대책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역대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사고가 발생한 은행 고위 경영진 및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횡령 금액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관련 범행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1억 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6개월(가중 10~30개월)이다. 5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미만은 최소 4년에서 7년(가중 5~8년), 300억 원 이상은 최소 5년에서 8년(가

중 7~11년)에 불과하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낮은 처벌 수위만큼이나 범죄 피해액 환수 실적도 저조하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횡령 금액은 무려 1,091억 8,260만 원. 그러나 같은 기간 금융권에서 환수한 횡령액은 127억 1,160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11.6%에 그쳤다. 저축은행의 환수율이 5.7%로 가장 낮았으며, 은행이 8.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권고형 기준 300억 원 이상이 최대치로 설정돼 있는 만큼 300억 원 이

횡령·배임죄 양형기준 촛촛히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제정돼야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도 폐단

상의 보다 더 큰 대규모 횡령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촛촛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횡령 사고와 관련, 고위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부감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임감사도 횡령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임감사가 은행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데 비해 임기는 3년으로 짧아 전반적인 은행 내부 상황 및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사실상 외부 감사를 위한 면피성 인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성을 떠나 정부 및 금융당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임감사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로 선임하는 은행 내부의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A은행 관계자는 "회사 상임감사가 내부 감사를 위한 자리라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야기"라며 "대부분의 국내 은행 상임감사가 금감원 재직 당시 부원장, 국장, 팀장 등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를 위해 파견을 나온 금감원 직원들도 상임

감사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자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비위나 횡령과 관련된 사건을 먼저 알게 된다고 해도 이를 한 개인이 공론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으니 내부 고발은 뜬구름 잡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지금으론 내부 고발자 혼자 '배신자'의 낙인을 안고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일갈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 이후 "최근 잇달아 금융회사에서 벌어지는 횡령 사고 관련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은 검토 중이나, 다만 CEO 책임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고는 특정 업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업권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오지현 기자

(주)DH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주)대성엘텍 인수

지분을 37.21%... 최대주주 등급 가전·전기장치 시너지 효과 기대

생활가전기업 DH글로벌이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주)대성엘텍을 인수했다.

11일 (주)DH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4일 (주)대성엘텍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스틱 PEF 외 3인과 총 1,150만 주에 대한 80억 5,000만 원 규모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계약에 따라 대성엘텍은 DH글로벌을 대상으로 324억 원 규모의 3차 배정 유상증자도 진행하며 주식 양수도(80억 5,000만원)와 신주 발행(324억 4000만원)을 통한 인수 대금은 총 404억 4000만원이다.

계약이 종결되면 대성엘텍 최대 주주는 DH

글로벌로 바뀐다. DH글로벌의 보유 주식은 5,302만 8,657주로 지분율은 37.21%가 된다.

이로 인해 계열사인 DH오토리드의 완성차 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격적인 전장(전기장치)사업 확대가 점쳐진다.

주력인 가전과 전장의 시너지 창출 및 신제품 개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전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자율주행차에 공급할 차량용 냉장고, 의류관리기, 제빙기 등을 내년 초 양산할 계획이다. 기존 가전 고객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오디오 신규 시장도 개척한다.

한편, DH글로벌은 생활가전 ODM·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전문업체로서 에어드레서, 양문형 냉장고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등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작년 매출은 3,260억 원을 기록했다. /홍승현 기자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광주시민회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2022 썸머 체크인 파티' 행사를 진행했다.

상반기 전력거래량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전력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었고 5~6월 때 이른 더위가 찾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금액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대폭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기 전력거래량은 26만 9,432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기록은 4년 전인 2018년 상반기의 26만 2,555GWh다.

상·하반기 통틀어 바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하반기(27만 7,630GWh)와 2018년 하반기(27만 4,506GWh)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다. /연합뉴스

'썸머 체크인 파티' 플리마켓 성료

지역 청년창업자·소상공인 참가 이틀간 3천여 명 방문 소통의 장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8일부터 광주시민회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이틀간 진행된 '2022 썸머 체크인 파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주)모람플랫폼이 함께

기획한 가운데 지역 청년창업자 14팀과 지역 소상공인 체험센터 13팀이 참가해 각종 디자인 상품, 수공예품, 식음료 등 창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이와함께 메이크업, 향수만들기, 백드롭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부스 프로그램이 진행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린 플리마켓과 체험부스에는 지역민·예약방문자 등 3,000여 명이 찾아 청년창업자들의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광주시민회관이 청년창업자의 소통과 교류의 도화선이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 성과와 결과를 되돌아보고 보완해 나갈 점 등을 개선해 향후 정기적인 플리마켓을 열어 지역 청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포장지 전문기업 디에스팩(주)

눈에 띄는 디자인 포장지는 곧 매출이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음색 인쇄를 통해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동판 인쇄
음색인쇄를 통한 용량비 절감

다양한 기성봉투
고민하지 말고 구매하세요

다품종 소량생산
비용, 재고 부담 절감

친환경 잉크
인체에 무해한 EB잉크사용

디에스팩(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로 70 (월전동 1250)
TEL : 062) 942-0000 dsp0011@naver.com

ECO 우리의 꿈 식품보다 더 깨끗한 포장지

소중한 가족이 먹는 식품은
포장지부터 달라야 합니다!

▲ 지피스텐딩 파우치

▲ 박스파우치

▲ 견수산물 / 농수산물 기성 봉

▲ 농수산물 기성 봉투 (일반형, 숨구멍)

디에스팩의 기술력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은 합판하여 인쇄가 가능합니다.

디에스팩에서 **친환경 EB잉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을 합판하여 인쇄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고객님의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